

고용24는 고령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일부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9.11.(금) 매일경제, “정부 고용24 ‘50대 우대 공고’...열 중 아홉은 돌봄·청소·경비”

- 휴먼라이츠워치(HRW) 보고서를 인용하여 고용24의 ‘50세 이상 우대’ 채용공고가 돌봄·청소·경비·요식업 등에 집중되어 있고, 일부 직종의 지원자도 성별에 따라 편중되어 고용24가 연령·성별에 따른 직종분리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내용 보도

2. 설명 내용

- HRW가 분석한 25만여 건 중 일부*인 ‘50세 이상 우대’ 공고에서 특정 직종 집중이 나타난 것이며, 고용24 전체 채용공고가 특정 직종에 집중된 것은 아님
 - ‘50세 이상 우대’는 구인기업이 50세 이상 구직자를 우대한다는 조건을 표시한 것으로, 정부가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특정 직종을 지정하거나 해당 직종에만 지원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님
 - * HRW는 분석대상 약 25만 건 중 ‘50세 이상 우대’ 공고가 약 6,700건(3% 미만)이고, 이 중 약 90%가 돌봄·청소·경비·요식업 분야라고 주장
- 실제로 50세 이상 구직자는 ‘우대’ 표시와 관계없이 다양한 직종에 취업하고 있으며, 기업의 구인공고 역시 다양한 직종에 걸쳐 있음
 - 고용24 이용자료를 분석한 결과, 50세 이상 취업자 중 기사에서 지정한 돌봄·청소·경비·요식업 등을 제외한 직종의 비율이 52.1%를 차지
 - * 지정한 직종 외에 경영·행정·사무(7.4%), 운전·운송(5.6%), 제조단순(4.0%), 건설·채굴(4.0%), 보건·의료(3.5%), 전기·전자 설치·정비 생산직(2.6%), 관리직(2.5%) 등 취업

○ 기업의 구인공고 역시 위 4개 직종을 제외한 직종이 69.7%를 차지

* 지적한 직종 외에 경영·행정·사무(12.0%), 제조단순(10.9%), 기계설치·정비·생산(6.1%), 운전·운송(4.5%), 금속·재료 설치·정비·생산(4.0%) 등 구인

□ 보도된 성비는 해당 직종에 지원한 구직자의 구성으로, 고용24가 성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나눈 결과가 아님

○ 고용24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구인공고에 성별을 제한하여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

○ 요양보호·청소 분야에 고령 여성이 많은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직종분리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, 고용24가 이를 발생시키거나 심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

□ 따라서 일부 공고의 직종 분포와 특정 직종 지원자의 성비만으로 고용24가 연령·성별에 따른 직종분리를 고착화했다고 보기 어려움

담당 부서	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	책임자	과 장	박보현 (044-202-7671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조규석 (044-202-7674) 김민영 (044-202-7687)

